

V

다문화 영화 <컬러풀 웨딩즈>와 <나의 그리스식 웨딩> 연구

신 영 현
한성대학교

문화접변의 최전선 국제결혼

한국 사회는 2006년에 참여정부가 ‘다문화·다민족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문제의식을 선언하면서 이주자 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게 된다.¹⁾ 대통령 산하 차별시정위원회가 2006년 4월 26일에 발표한 ‘혼혈인과 이주자에 대한 사회통합 지원안’은 한국 정부 주도의 다문화주의의 청사진이자 선언문 격이라고 할 수 있다.²⁾ 이때를 기점으로 한국 사회는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급격하게 진행해 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00만에 달하는 외국인이 다양한 신분과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에는 선주민과 이주민 간에 직간접적인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³⁾ 이러한 상황은 단일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한국인들이 타문화에 대해서 보다 많은 이해와 포용의 자세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그중 가장 일반적인 정의가 바로 레이먼드 윌리엄즈(Raymond Williams)의 정의이다. 영국의 문화학자인 윌리엄즈는 문화를 “물질적이고 지적이고 정신적인 총체적 생활양식”⁴⁾이라고

정의한다. 유네스코^{UNESCO}에서 사용하는 “한 사회와 집단의 성격을 나타내는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성의 총체”⁵⁾라는 문화의 정의 또한 윌리엄즈의 정의를 구체화시킨 예라고 할 수 있다.

문화가 특정 인간 집단의 총체적 생활양식이라면, 세상에는 다수의 문화가 존재하기 마련이며, 박준웅에 따르면, 속성상 “문화들은 서로 충돌하기 마련이다.”⁶⁾ 왜냐하면 “특정한 내용으로 구축된 포괄적 규범 체계로서의 문화들은 각각 다른 문화를 아울러 포괄하여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 공통점보다는 차이를, 이해보다는 배척을, 합의보다는 독선을 이끌기 쉽기 때문이다.”⁷⁾ 서로 다른 문화들은 “상호 공존보다는 차이를 통한 문화 상호 간의 충돌을 일차적인 상호 간의 대응으로 받아들인다.”⁸⁾ 문화의 충돌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는 인종적, 종교적, 정치 체제적, 윤리 규범적 차이와 관련된 충돌로 나타나며, 이러한 차이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갈등 상황으로 나타나기도 한다.⁹⁾ 그리고 이러한 문화 충돌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결혼이다. 결혼 그중에서도 이질적인 인종문화적^{ethnic} 배경 출신들로 이뤄지는 국제결혼의 경우, 결혼에 이르는 과정에서부터 결혼 생활 전체에 걸쳐서 서로 간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다양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사람들은 보통 그들 자신의 습관적 행동이나 태도를 가장 합리적이고 옳은 것으로 느끼며 자신들과 다른 문화권 사람들의 관습이나 삶의 방식은 부도덕하거나 열등한 것으로 느끼기 쉽기 때문이다.”¹⁰⁾

영화 <컬러풀 웨딩즈>와 <나의 그리스식 웨딩>은 문화 간 갈등과 이의 해소라는 공통의 주제를 다룬 작품들이다. 인종 간 결혼갈등이 가장 일상화된 대표적인 나라들인 프랑스와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들답게, 위 영화들은 결혼을 매개로 이뤄지는 이질적 문화들의 조우, 갈등 및 화해를 잘 묘사한다.¹¹⁾ 특히 종족 문화^{ethnic culture}의 차이로 인한 갈등과 오해는 영화를 이끌어가는 주된 동력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을 대처

하고 극복하는 방식에 있어서 두 영화는 차이를 보인다. 두 영화를 통해 이질적인 문화가 만날 때 발생하는 갈등의 양상들을 짚어보고 위 텍스트들이 이 갈등들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극복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컬러풀 웨딩즈〉와 〈나의 그리스식 웨딩〉이 그리는 다문화 결혼

영화 〈컬러풀 웨딩즈〉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프랑스 상류층 부부의 딸들이 타 문화권 출신 배우자들과 결혼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과 긴장을 해학과 풍자로 승화시킨 가족 코미디이다. 이 영화는 2014년도에 개봉되었으며 러닝타임은 97분이다. “Serial Bad Weddings”(일련의 나쁜 결혼들)라는 원제가 시사하듯이 이 영화는 클로드 베르누이(크리스티앙 클라비에 분)와 마리 베르누이(채털 로비 분) 부부의 눈에 비친 일련의 ‘나쁜’ 결혼에 관한 이야기이다. 베르누이 부부는 프랑스 상위 1%에 해당하는 상류층 가정으로 둘 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다. 그들은 프랑스의 전통적 문화와 가치를 대변하는 인물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나쁜’ 예로 보이던 딸들의 결혼은 영화의 결말에 이룰수록 점점 더 ‘멋진’ 결혼으로 변해간다. 한마디로 〈컬러풀 웨딩즈〉는 이러한 시선의 변화가 어떤 과정과 계기를 통해서 이뤄지는가를 보여주는 영화이다.

〈나의 그리스식 웨딩〉은 2003년에 개봉한 미국의 코미디 영화로서 그리스 이민자로서 매사에 그리스식 전통과 정체성을 강조하는 아버지의 바람을 거스르고 전형적인 미국인 남자와 결혼하는 그리스계 미국인 여성 톨라 포르토칼로스(니아 바르달로스 분)의 이야기이다.¹²⁾ 톨라의 아버지인 거스 포르토칼로스(마이클 콘스탄틴 분)는 모든 언어가 그리스어에서 기원했다고 믿으며, 그리스 여자의 덕목은 세 가지 즉 “그리스

남자와 결혼해서 그리스인 아이를 낳고 식구를 먹여 살리는 것(그것도 죽는 날까지!)”이라고 믿는 그리스 우월주의자이다. 그는 시카고의 중산층 마을에 살면서 파르테논 신전을 본떠서 지은 집에 그리스식 동상을 세우고 그리스 국기를 휘날리며 사는 대가족의 가부장이다. 그는 ‘댄싱 조르바’라는 그리스 레스토랑을 가족 기업으로 운영하는 사장이기도 하다. 그에 따르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데 “하나는 그리스인들이고 나머지 하나는 그리스인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위대한 그리스를 떠나서 왜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가라는 관객들의 의문은 “아빠는 딱 두 가지만 믿는데, 첫째는 그리스인들이 비그리스인들에게 ‘그리스다움^{being Greek}’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과 모든 질병은 원텍스로 고칠 수 있다는 것”이라는 톨라의 말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거스는 미국에 건너온 그리스 이민자들의 지독한 순혈주의 의식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인물이다.¹³⁾ 그런데 거스의 그리스 우월주의는 유리세정제인 원텍스에 대한 근거 없는 맹신과 맞물려서 시작부터 관객의 공감이나 동의의 대상이 아니라 비판적 시선의 대상으로 제시된다.¹⁴⁾ 원텍스는 미국 브랜드의 유리세정제이며, 자연스럽게 미국의 실용주의 문화와 자본주의를 상징한다. 거스의 그리스 우월주의는 편의성과 효율성을 앞세우는 미국 문화에 대한 숭배와 묘한 부조화를 이루며, 유리세정제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우기는 미신적 사고는 자연스럽게 그의 그리스 우월주의를 내부에서 해체^{deconstruct}하고 있다.

아버지의 그리스 우월주의는 막내딸 톨라에게 감옥 같은 족쇄로 작용한다. 아버지의 바람에 딱 맞는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언니 아테나와 달리 톨라는 아버지의 기준에 맞춰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따라서 자신은 제대로 된 연애와 결혼을 하지 못하고 독신으로 늙어갈 것으로 체념하면서 가족 기업인 식당의 웨이트리스로 하루하루 연명해간다. 그러나 이런 톨라에게 백인 미국인 남성인 이안 밀러(존 코벳 분)와의 만남은 이러한 상황에서 탈출하는 계기이자 동력을 제공한다.

그와 만나면서 툼라는 지금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갖게 되며 엄마를 설득해서 야간 대학을 다니기 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행사 직원으로 채용된다. 의미 없이 반복되는 창살 없는 감옥살이 같던 식당 일을 그만두고 자신이 꿈꾸던 자유롭고 능동적인 삶을 살게 된다. “My Big Fat Greek Wedding” (나의 성대하고 요란한 그리스식 결혼식)이라는 원제가 암시하듯이 이 영화는 아버지의 순혈주의와 그리스 지상주의를 뚫고 마침내 자신이 선택한 배우자와의 결혼에 성공하는 여성 주체 툼라의 이야기이다.

영화에 나타나는 다문화 주제들

두 영화에는 여러 다문화 주제들이 등장한다. 우선, 다문화사회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전면에 등장한다. <컬러풀 웨딩즈>의 경우, 이러한 갈등이 공간적 대비를 통해 구체화된다. 이 영화의 주요 공간적 배경은 시농과 파리이다. 시농을 대표하는 장소인 시농성은 백년 전쟁 당시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해낸 국가적 영웅인 잔 다르크가 궁지에 처한 샤를 7세를 찾아가서 영국에 항전하라는 신의 계시를 전한 유서 깊은 성이다.¹⁵⁾ 이런 맥락에서 베르누이 부부가 거주하는 시농은 프랑스의 역사와 전통 및 종교를 상징한다. 이에 반해 딸들과 사위들의 주된 생활 배경인 파리는 전 세계에서 몰려든 여러 문화와 인종이 뒤엉켜 공존하는 공간 즉 다문화 공간을 상징한다. “파리가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를 소화해내는 국제도시라고 한다면, 베르누이 부부의 보수적이고 부르주아적인 삶에 담긴 프랑스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애국심이 강하게 전달되는 공간은 바로 시농이다”는 이정민의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¹⁶⁾

영화는 프랑스의 문화와 전통을 대변하는 시농 시청에서 첫째 딸 이자벨(프레데릭 벨 분)이 아랍인 청년 라시드(메디 사둔 분)와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뒤이어 그로부터 일 년 뒤 둘째 딸 오딜(줄리아 피아톤 분)이 유대인 다비드(아리 아비탄 분)와 결혼식을 올리며 계속해서 다시 그 이듬해에는 셋째 딸 세고렌(에밀리 캉 분)이 중국인 청년 샤오(프레데릭 카오 분)와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이 숨 가쁘게 이어진다. 이 세 번의 결혼식으로 베르누이 가문은 클로드의 말대로 소위 ‘베네통 가족(Benetton family)’이 된다. 여기서 ‘베네통 가족’¹⁷⁾이라는 말은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인권을 강조하는 광고로 유명한 패션 회사인 베네통사를 빗대어 다문화 가문이 되어 버린 현 상황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클로이의 자조적 표현이다.

〈킬러폴 웨딩즈〉는 갈등의 발생과 갈등의 봉합 그리고 또 다른 갈등의 발생과 이의 봉합이 이어지는 구도를 지니고 있다. 영화의 장면마다 인종갈등, 민족갈등, 국가갈등이 이리저리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다양한 갈등들은 프랑스가 현재 직면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바로 다문화사회의 성공적 통합이라는 의제임을 관객에게 환기시킨다. 사실 프랑스는 1889년 6월 12일 제정된 국적법 이후로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귀화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정책을 펼쳐왔으며,¹⁸⁾ 1927년의 국적법 개정을 통해 프랑스 국적 취득 기간을 대폭 단축하였다.¹⁹⁾ 결과적으로 1931년에는 전체 프랑스 인구의 6.6%에 해당하는 약 270만 명의 외국인이 프랑스에 거주하게 된다.²⁰⁾ 2차대전 종전 해인 1945년에 프랑스는 전쟁의 여파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인구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이민청 설립을 통한 대규모 국외 노동자 이주 장려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1970년대에 들어서 아프리카 출신 노동자들의 대규모 유입이 있었으며, 그 결과 프랑스는 다문화사회로 급격히 변화하였다.²¹⁾ 사실 이는 비단 프랑스에만 국한되는 현상은 아니었으며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에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프랑스를 위시한 대표적 서유럽 국가인 영국과 독일은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상호이해와 공존을 위한 여러 가지 다문화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위 국가의 지도자들은 다문화주의가 실패하였음을 선언하게 된다.²²⁾ 그 이유로 다문화주의(혹은 다문화정책)가 사회통합이 아닌 분리를 야기하고, 차이를 줄이는 대신 극대화시킨다는 점을 든다.²³⁾ 결국 차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서유럽 국가들의 존립과 안녕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 셈이다. 이런 이유에서 문화적 인종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그 극복을 영화적 문법을 통해 모색해 보는 것은 자못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컬러풀 웨딩즈〉는 “프랑스 내에 일어나고 있는 인종 간 혹은 다문화 갈등을 한 집안에서 일어난 다인종 간 결혼이라는 극단적 상황 설정을 통해 무겁지 않은 코믹함과 자조적인 웃음을 통해 보여준다.”²⁴⁾ 첫 번째 갈등이 발생하는 장면은 첫 손주인 벤자민(다비드와 오딜 부부의 첫 아이)의 할례식과 이어지는 가족 만찬 장면이다. 손주가 (자신이 보기에) ‘야만적인’ 이교(유대교)의 종교의례에 따라 할례를 받는다는 사실과 자신이 이를 축하하는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심사가 뒤틀린 클로드는 만찬 중에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는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유대인과 아랍인들의 식습관에 대해 불평하던 와중에 클로드는 파리의 몽마르뜨 거리를 방문했을 때 느꼈던 불쾌한 감정을 토로한다. 몽마르뜨에 있는 한 이국적인 식당을 갔다가 길을 잃었던 경험을 되새기면서, “난 내가 중동에 온 줄 알았다니까. … 프랑스인은 하나도 없더라고!”라고 불평한다. 이에 대해 오딜은 “여권 검사라도 하셨어요?”라고 따지다가 마침내 “완전 인종 차별주의자!”라고 퍼붓는다. 기성세대인 클로드의 경우 프랑스인에 대한 무의식적인 기준이나 이미지가 있으며, 외모나 옷차림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에 반해 젊은 세대인 오딜은 프랑스인은 시민권과 국적법에 의해 구성되는 존재이며 따라서 외모나 문화로 식별할 수 없다고 믿는다. 사실 이는 다문화사회의 핵심적 쟁점이다. 즉 프랑스인이라는 개념이 프랑스 시민권을 획득한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인지 아니면 전통적인 프랑스식 문화와 생활방식과

종교를 따르는 자만을 가리키는 제한적 개념인지가 다문화 갈등의 핵심에 자리한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이러한 갈등은 비단 〈컬퍼폴 웨딩즈〉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나의 그리스식 웨딩〉의 거스는 클로드보다 훨씬 더 노골적인 차별주의자이다. 그는 딸의 남자 친구인 미국인 청년 이안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우리 조상들이 철학을 논할 때 너희 조상들은 나무를 타고 다녔어”라고 거침없이 말한다. 거스는 그리스가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 모든 언어의 기원은 그리스어에서 나왔다고 믿는 그리스 우월주의자이다. 문화학자들은 타문화를 대하는 태도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 자문화중심주의, 문화사대주의, 그리고 문화상대주의²⁵⁾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자문화중심주의란 “자기 문화의 가치와 전통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문화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태도나 그러한 이데올로기”²⁶⁾를 가리킨다. 거스가 보여주는 태도가 바로 전형적인 자문화중심주의이다. 그는 그리스 문화가 최고이고 그리스 문화를 잣대로 타문화를 평가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자문화중심주의가 심해질 경우 타문화를 말살하고 자문화를 이식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는 문화제국주의²⁷⁾로 진화한다. “비그리스인들에게 그리스다움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거스의 신념은 이의 전형적인 예이다.

두 영화에서 공통적으로 비중있게 다뤄지는 두 번째 주제는 종교 간 갈등이다. 문화 충돌과 갈등에서 핵심은 종교적 요소임이 두 영화 모두에서 강조된다. 이것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 바로 〈컬러폴 웨딩즈〉의 크리스마스 파티 장면이다. 베르누이 부부는 자녀들과의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들을 집으로 초대한다. 파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리는 에스닉 레스토랑을 찾아가서 사위들이 좋아할 만한 코셔와 할랄 요리 만드는 법을 배우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다. 마리의 노력 덕분에 모처럼 평화롭고 풍성한 크리스마스 파티가 된다. 그런데 영화는 파티 도중에 아이들을 앓고 답소를 나누는 사위들 앞에서

마리가 손주들에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설명하는 장면을 슬쩍 끼워 넣는다.

마리: 우리 아기들, 재밌니? 예쁘지? ‘구유’라는 거란다. 이건 당나귀. 이건 황소. 그리고 여기 … 아기 예수님이야. 하느님의 아드님이시지.

이를 들은 두 사위는 즉각 장모의 잘못된 가르침을 교정해 준다.

다비드: 할머니가 예수님을 홍보하고 가셨네. 근데 예수는 예언자일 뿐이야.
라시드: 이모부 말이 맞아. 그냥 예언자 나부랭이지.

관객의 웃음을 유발하는 장면이지만 사실 이는 기독교와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의 핵심적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구약성서를 핵심적인 경전으로 공유하는 세 종교이지만, 예수를 누구로 볼 것인가라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서로를 악으로 규정하고 이단으로 증오해 온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영화는 이런 차이가 과연 서로의 존재를 말살해야 할 정도의 근본적 차이인지를 되묻는다. 특히 자정 미사에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리의 제안에 대해 “사실 모든 종교의 뿌리는 하나죠”라고 대답하면서 흔쾌히 수락하는 라시드의 모습을 통해, 개인의 양심과 의지로 선택하는 신앙(신념)의 차이는 결코 동일성으로 회귀할 수도 회귀해서도 안 되지만, 문화적 양식으로서의 종교 행위의 차이는 통합과 화해를 위해 일정 부분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영화는 던진다.

〈나의 그리스식 웨딩〉의 경우 종교적 차이로 인한 갈등은 〈컬러풀 웨딩즈〉에 비하면 별로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두 집안의 종교적 전통의 차이가 기독교(개신교)와 그리스 정교의 차이라는 점에서 앞서 논의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차이에 비해서는 덜하다는 점이다. 둘째는 〈나의 그리스식 웨딩〉의 경우, 거스의 그리스 우월주의와 인종주의가 워낙 전면에 두드러지다 보니

종교적 차이로 인한 갈등은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실 이 두 가지 이유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이안 쪽에서 그리스정교로 개종함으로써 이 차이를 무화시키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종교적 갈등이 벌어질 소지가 아예 사라져 버렸다는 점이다. 사실 이는 〈나의 그리스식 웨딩〉의 서사가 지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위 영화들에 드러나는 또 다른 다문화적 주제는 문화적 차별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따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예리한 통찰이다. 이는 〈컬러풀 웨딩즈〉에서 장인 부부에게서 직간접적 인종차별을 경험한 사위들이 막내 처제인 로라(엘로디 풍탕 분)가 코트디부아르 출신 흑인 청년 샤를 코피(늬움 디아와라 분)와 결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합하는 모습에서 잘 드러난다. 그들은 샤를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 전혀 모르는 채 그가 아프리카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처제의 배우자감에서 배제시키며, 이 결혼을 막기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선다. 그들은 샤를을 미행해서 그가 젊은 여성과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한 후 이를 로라에게 고자질한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샤를과 호텔에 동행한 여성이 그의 여동생이었음이 밝혀지면서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난다.

그러나 이 에피소드를 통해 영화는 유색인종 안에서도 피부색에 따른 차별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유색인종으로서 백인들의 인종차별을 경험한 동병상련의 처지인 그들이 다른 인종을 차별하는 허위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영화는 폭로한다. 만약 자신들의 피부가 아프리카인들보다 덜 검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논리가 옳다면 동일한 이유로 자신들에 대한 백인들의 차별 또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인종차별의 희생자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인종차별을 반대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인종차별 이데올로기를 무의식적으로 내면화할 수도 있음을 〈컬러풀 웨딩즈〉는 예리하게

지적한다. 이런 장치를 통해 인종차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따로 없으며, 누구나 차별주의자가 될 수 있음을 영화는 경고한다.

두 영화에서는 성별에 따른 문화적 유연성의 차이라는 주제 또한 비중 있게 다뤄진다. 두 영화에서는 공통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본인의 문화를 더 고집하고 타문화를 더 심하게 배척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런 맥락에서 신원선은 “영화 속 갈등의 주도권을 쥔 아버지의 모습이 좀 더 권위주의적이고 기득권 세력을 대표한다면, 어머니는 아버지의 시각보다 좀 더 진보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을 보여준다”²⁸⁾고 지적한다. 물론 여성인 마리 베르누이와 마리아 포르토칼로스(레이니 카잔 분) 역시 영화 초기에는 남편들과 마찬가지로 타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 그러나 마리는 딸들의 다문화·다인종 결혼으로 인해 우울증까지 앓으면서도, 결국은 딸들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21세기야. 여보, 세상이 변했다고. 이제 좀 열린 눈으로 세상을 봐야지”라고 남편을 설득한다. 이러한 입장 변화가 사위들을 대접하기 위해 그들의 민속 음식 요리법을 배우는 노력과 어우러지면서 큰 설득력과 울림을 갖게 된다. 여성이 남성보다도 문화적 수용성이 더 높다는 영화적 설정은 “여성일수록 다문화 수용 태도가 긍정적인임을, 다시 말해 남성일수록 국내 거주 외국인 또는 이주민에게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연구결과와도 부합한다.²⁹⁾

〈나의 그리스식 웨딩〉의 마리아 역시 남편보다는 훨씬 더 큰 다문화 수용성을 보여준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딸의 확고한 결심을 확인하고는 아빠를 설득해서 결혼이 성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다. “남자가 머리라면 여자는 목이야. 머리는 목이 돌아가는 대로 따라 돌 수밖에 없단다”라는 그녀의 말은 가부장제 사회의 규범에 복종하면서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를 전복하면서 변화를 수용해 온 여성들의 투쟁을 위트있게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두 영화에서 결혼의 주도권을 더 많이 행사하는 쪽은

인종적 소수자에 해당하는 집안의 남성 가장들이다. 즉 <컬러풀 웨딩즈>의 앙드레나 <나의 그리스식 웨딩>의 거스는 둘 다 지배문화의 입장에서 보면 소수자 문화를 대변하는 인물들이다. 그들은 각각 자신의 가정에서는 주도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가부장들이며, 그런 이유로 자녀들의 결혼을 마지막 순간까지 반대한다. 그러나 전체적인 구도로 보면 이들의 억지스러운 요구를 지배 세력에 속하는 베르누이 부부와 밀러 부부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갈등이 해결된다. 이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상황에서 상황 변화의 키를 쥐고 있는 쪽은 소수 세력이 아니라 지배 세력이라는 냉정한 현실을 두 영화가 꿰뚫어 보고 있음을 말해준다. 달리 말하면 문화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더 적극적이고 우선적인 수용과 양보가 필요함을 두 영화가 에둘러 주장한다고 볼 수 있다.

동일한 갈등에 대한 상이한 해결 방식

<컬러풀 웨딩즈>와 <나의 그리스식 웨딩>은 다문화 결혼을 모티브로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벌어지는 갈등과 이의 해결을 유쾌하게 그리는 코미디 영화들이다. 이 영화들에 대한 기존 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는 이 영화들의 한계 내지 문제점을 꽤 날카롭게 지적하는 연구들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과연 온당한가에 대해서 따져보는 것은 위 영화들을 제대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절차이면서 위 영화들을 더 잘 음미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신원선은 <나의 그리스식 웨딩>에 대해 “이 영화의 최대 갈등이었던 순혈주의에 대해 어떤 문제 제시나 해결책 없이 그저 유쾌한 해피엔딩으로 그동안의 결혼갈등을 봉합하는 의사 통합론적 결말을 보여주고 있”³⁰⁾다고 비판한다. 한 마디로 가짜 해결을 제시한다는 말이다. ‘밀러’라는 성은 ‘사과’를 뜻하는 그리스어 밀로에서 왔으며 ‘포르토칼로스’라는 성은

오렌지를 뜻하는 그리스어 단어 ‘포르토말리’에서 왔으므로, 결국 자신들은 서로 다르지만 결국 다 과일이라는 거스의 빈약한 통합론 역시 그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³¹⁾

그러나 거스의 과일론은 애초에 두 집안으로 대표하는 이질적 문화를 통합하기 위해 제시한 논리나 이론이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어 새로운 출발을 눈앞에 둔 젊은이들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한 의례적 언사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의례적 언사가 양 가문의 통합의 진정한 해결책이 되기에는 너무 빈약하다는 비판은 애초에 어불성설이다. 거스의 순혈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나 해결책이 없이 갈등이 봉합된다는 비판 역시 마찬가지로 설득력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순혈주의에 근거한 거스의 완고한 반대를 극복하고 이안을 남편으로 맞이하는 툴라의 선택 자체가 문제 제기요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사실 평생을 자신의 정체성의 기반으로 삼아온 그리스 순혈주의와 그리스 우월주의는 한두 번의 토론이나 논쟁으로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 툴라의 선택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실천을 통해서만 돌파할 수 있는 장벽인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해결책이 두 문화의 상호이해와 수용에 근거해서 이뤄지느냐이다. <나의 그리스식 웨딩>의 진짜 문제점은 두 문화의 충돌로 인한 갈등의 해소가 이안 측의 일방적인 양보와 수용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이안은 순혈 그리스인이 될 순 없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거스의 방식을 수용한다. 결혼식의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도 철저히 거스의 요구에 따른다. 이의 백미는 청교도 신앙을 가진 이안이 거스의 종교인 그리스정교회로 개종하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다. 반면 거스 입장에서는 순혈 그리스인이 아닌 토박이 미국인을 사위로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양보나 수용의 제스처도 보이지 않는다. 아마 결혼 이후 거스는 이안이 대변하는 미국식 전통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자신만의 방식대로 계속 살아갈 것이다. 이는 다문화텍스트로서

이 영화가 지닌 결함이 아닐 수 없다.

〈나의 그리스식 웨딩〉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갈등 해결에 있어서 주인공 툴라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툴라에게 아버지의 완고한 그리스 중심주의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사실 툴라는 자신의 숙명과도 같은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용기 있는 여성이다. 이는 그녀가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자신의 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국 ‘댄싱 조르바’를 벗어나서 자신이 평소 꿈꿔왔던 여행사 직원이 되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이런 툴라가 결혼 승낙 이외에 아버지와 남편 간의 문화적 차이를 조율하는 문제에 있어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녀의 캐릭터의 일관성을 일정 부분 손상시키는 설정일 수 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6년 뒤, 이제는 우리 딸이 그리스 학교에 갈 차례가 되었다”는 툴라의 내레이션 역시 자신이 어렵게 탈출한 아빠의 그리스 우월주의로 회귀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 그다지 납득이 가지 않는 결말이다.

이에 반해 〈킬러폴 웨딩즈〉의 경우 갈등의 해소가 어느 한쪽의 일방적 양보나 수용이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훨씬 긍정적이다. 엄밀히 말하면, 신랑 측 부모보다는 신부 측 부모인 베르누이 부부가 더 많이 양보하는 게 사실이다. 앙드레(신랑의 아버지)의 억지스러운 요구들—예컨대 친지들을 400명이나 결혼식에 초대하겠다고거나, 결혼 전에 처가에서 수일간 머물면서 결혼을 준비하는 아프리카식 결혼을 고집하는 등—에 황당해하면서도 베르누이 부부는 결국 자신의 안방까지 내어 주면서 손님을 환대한다. 김현경은 환대를 “타자에게 자리를 주는 것 또는 그 자리를 인정하는 것, 그가 편안하게 ‘사람’을 연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하여 그를 다시 한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³²⁾이라고 정의한다. 베르누이 부부의 행위는 자신의

문화적 관습을 넘어서 타인을 존중하고 환대하는 다문화적 실천의 좋은 예이다.

물론 <컬러풀 웨딩즈>의 접근 방식이 모든 점에서 만족스러운 것은 아닐 수 있다.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클로드가 아프리카식 결혼의 절차와 방식을 수용하는 반면 신랑의 아버지인 앙드레(파스칼 은존지 분) 쪽에서는 별다른 수용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앙드레가 마지막 결혼식 장면에서 아프리카 전통 의상(부부)을 고집하지 않고 양복을 입는다는 점은 나름대로의 양보와 타협의 증거로 볼 수 있다. 또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식민지배 문화를 많이 수용한 상태—이의 증거가 바로 앙드레 가문이 식민지배세력의 종교인 가톨릭을 믿고 있다는 점이다—에서 더 이상의 문화적 양보는 앙드레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이해가 된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클로드와 앙드레의 화해와 상호이해가 다소 급작스럽게 제시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신원선은 이를 “가짜 통합”이라고 비판한다.³³⁾ 그러나 화해가 급작스럽게 이뤄진다고 해서 가짜일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과연 서로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과정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는가이다. 인종과 민족이라는 장벽에 가려져 있지만 사실 클로드와 앙드레에게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다. 우선, 둘 다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기 버거워하는 가부장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이념적으로 그들은 둘 다 보수주의자요 민족주의자들이다. 이는 둘 다 프랑스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드골(De Gaulle) 지지자라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결혼식을 앞두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낯시터로 향한 두 사람은 다음의 대화를 나눈다.

앙드레: 그쪽도 이 결혼 반대해요?

클로드: 당연하죠.

앙드레: 난 당신이 공산주의자인 줄 알았는데.

클로드: 내가? 공산주의자?

난 드골 지지자예요!

앙드레: 어, 나도 그런데. 아프리카 정책만 빼고요.

정치적 성향만큼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기에 용이한 것이 없다. 그것은 동일한 집단에 속하는 구성원들에게 정서적 일체감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껏 가까워진 두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만취 상태에서 서로의 옷을 바꿔 입는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 문학작품이나 영화에서 옷을 바꿔입는 것은 정체성의 변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치이다. 이는 두 사람이 서로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서 이는 각자가 차이를 극복하고 상호(문화적) 정체성³⁴⁾을 전유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사실 다문화주의의 핵심 가치는 타자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테일러^{Charles Taylor}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독특한 정체성에 대해 인정받아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민족이든지 자신에게, 즉 자신의 문화에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를 요약한 바 있다.³⁵⁾ 그러나 다문화주의가 타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에 그친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캔틀^{Ted Cantle}이 “결속된 공동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긍정적 모델”로서의 상호문화주의를 제안하는 논리적 근거이다.³⁶⁾ 여기서 캔틀이 상호문화주의의 우월성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다양성의 양상과 혼종 정체성에 대처할 수 있는 더욱 역동적인 모델”이라는 사실이다.³⁷⁾ 캔틀에 따르면, 고정된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다문화주의가 서로 다른 문화의 공존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차이를 강화하는 반면, 상호문화성의 핵심 특징은 문화들 간의 개방성, 대화, 및 상호작용에 있는데,³⁸⁾

클로드와 앙드레가 서로의 정체성을 전유하는 영화 속 장면은 위의 완벽한 예를 제공한다.

또한 앙드레는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로 국제결혼은 파경에 이르기 쉽다는 논리를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이 말은 자신의 의도를 해체하는 논리로 되돌아온다.

앙드레: 기름, 물, 섞습니다. 증거 여겼소. 안 섞이잖아요.

클로드: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요? 카푸치노 말이요. 우유는 커피랑 잘만 섞이는데?

앙드레: 그럴네? 내가 멍청한 소릴 했네요.

사실 이 장면은 이 영화의 메시지가 가장 강력하게 녹아있는 장면이다. 클로드는 앙드레의 논리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결혼 반대가 상식에 어긋나는 끈대짓에 불과함을 논증하고 앙드레 역시 순순히 이를 받아들인다.

결국 만취한 앙드레가 ‘초콜릿 머랭’이라는 이름의 디저트를 ‘깜둥이 머리’라는 옛날식 이름으로 부르다가 경찰에 잡혀서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되고, 그곳에서 함께 갇힌 취객과 시비가 붙어서 주먹다짐까지 벌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클로드는 앙드레 편을 든다. 즉 공통의 적과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사실 클로드와 앙드레의 화해는 신원선의 비판처럼 급작스럽지 않으며 가짜 화해도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서로의 차이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만큼 크지 않으며, 오히려 피상적인 차이 속에 많은 공통점이 혼재하고 있음을 발견한 끝에 화해에 이른다는 점에서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나가며

영화 <컬러풀 웨딩즈>와 <나의 그리스식 웨딩>은 이질적인 문화의 충돌과 이의 극복에 주목하는 코미디 영화이다. 본래 다른 문화의 만남은 상호 공존보다는 충돌로 이어지기 마련이며, 이러한 충돌의 가장 전형적인 예가 바로 결혼이며, 그중에서도 이질적인 인종문화적 배경 출신들이 결합하는 국제결혼이다. 결혼에 이르는 과정에서부터 결혼 생활 전체에 걸쳐서 서로 간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다양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습관적 행동이나 태도를 가장 합리적이고 옳다고 여기며, 자신들과 다른 문화권 사람들의 관습이나 삶의 방식은 부도덕하거나 열등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결혼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은 인종적, 종교적, 정치 체제적, 윤리 규범적 차이와 관련된 충돌의 양상으로 나타나며, 대개 이러한 차이들이 복합적으로 뒤엉키는 중층적 갈등으로 이어진다. 위 영화들은 이러한 다양한 갈등 양상과 그 극복 과정을 설득력 있게 묘사한다.

다문화 텍스트답게 두 영화는 이질적인 문화들이 만날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오해와 갈등을 소개하고 이를 해소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대표적인 갈등 유형들인 종교적 갈등, 인종적 갈등, 문화적 갈등을 영화의 서사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두 영화 모두 다문화텍스트로서의 전형성을 획득하고 있다. <컬러풀 웨딩즈>의 경우 인종적 차이와 종교적 차이가 갈등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비해 <나의 그리스식 웨딩>의 경우 자민족중심주의라는 인종문화적 요소가 갈등의 주된 원인이다. 전자에서는 딸들이 타문화권 출신의 배우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못마땅해하는 베르누이 부부의 인종적 편견이 갈등의 주된 요인이다. 그러나 막내딸의 결혼 과정에서 겪는 일련의 경험을 통해 베르누이 부부는 자신들의 인종적, 문화적 편견을 극복하고 다문화 결혼에 대한 변화된 시선을 갖게 된다. <나의 그리스식 웨딩>에서 갈등의

주된 원인은 거스가 지닌 지독할 정도의 그리스중심주의이다. 모든 그리스 여성의 사명은 그리스 남성을 만나서 결혼하고 순혈 그리스 아이를 낳고 이들을 죽을 때까지 먹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스의 그리스 우월주의는 그의 막내딸 툴라에게 감옥같은 족쇄로 작용한다. 이런 툴라에게 백인 미국인 남성인 이안과의 만남은 이러한 상황에서 탈출하는 계기이자 동력을 제공한다. 툴라는 아버지의 완고한 그리스 우월주의로 인한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행복한 결혼에 성공한다.

두 영화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에 주목하면서도 그러한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다소 상이한 접근을 취한다. <나의 그리스식 웨딩>의 경우 서로 다른 문화적, 종교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이해와 양보로 이뤄진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은 청교도 신앙을 가진 이안이 거스의 종교인 그리스정교로 개종하고 세례를 받는 대목이다. 반면 <컬러풀 웨딩즈>의 경우 베르누이 부부 쪽에서 전체적으로 더 많은 이해와 양보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두 집안의 가부장들인 클로드와 앙드레가 서로의 다름보다는 공통점을 더 많이 발견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식으로 화해가 이뤄진다. 특히 술에 취해 두 사람이 서로의 옷을 바꿔 입는 장면은 문화간 차이를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문화적 보편성 및 융합을 추구하는 상호문화적 정체성의 예로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컬러풀 웨딩즈>가 <나의 그리스식 웨딩>보다 좀 더 건강하고 단단한^{solid} 문제 해결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두 이질적인 문화의 충돌로 인한 갈등이 서로 간의 이해와 양보, 타협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나의 그리스식 웨딩>의 문제점은 영화의 결말까지도 고스란히 이어진다. 즉 이안과 툴라에게서 난 딸이 다시 그리스 학교에 입학한다는 영화의 마지막 설정이 그것이다. 반면 <컬러풀 웨딩즈>의 경우, 마지막 장면에서 그동안 로라의 결혼과 관련해서 서로에게 감정이 많이 쌓여서

결국 이혼까지 결심한 아내에게 클로드가 “마리, 나와 두 번째 허니문을 떠나 주겠소?”라고 요청하고 “우린 세계 일주를 할 겁니다. 샤오의 베이징에 들렀다 라시드의 알제리, 다비드의 텔아비브도 가고 마지막으로 샤를의 고향도 가야죠”라고 선언하는 장면은 “희극의 주제는 사회통합”이라는 코미디 영화의 정석을 잘 보여준다.³⁹⁾ 

〈원문출처〉

이 글은 아래의 글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신영현, 「이질적인 문화의 충돌과 공존 -영화 <컬러풀 웨딩즈>와 <나의 그리스식 웨딩> 연구」 『호모미그란스』 27, 이주사학회, 2022

〈저자소개〉

신 영 현 (한성대학교 교양대학 기초교양학부 교수)

저자 신영현은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미국소설 전공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성대학교 교양대학 기초교양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국 현대 소설, 정신분석, 문화연구, 문학과 영화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연구와 저작 활동을 수행 중이다. 저서로는 『윌리엄 포크너 연구: 성장을 통한 희망 찾기』와 공저서로 『윌리엄 포크너』가 있으며, 「『종군위안부』 연구: 교호적 서술과 자유직접화법을 통한 혼종적 정체성의 전유」를 위시한 다수의 논문이 있다.